

광주시, 코로나 구급출동 확 늘었다

올해 3분기 1만776명 병원·격리시설 이송 화재·구조출동 줄고 구급·생활안전 증가세

올해 광주지역 119 구급 출동 건수는 급증한 반면 화재·구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의심환자 이송 건수가 증가한 탓이다.

1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30일까지 광주 소방활동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급 출동 건수는 총 5만2천339건, 이송 인원은 3만5천673명이었다.

하루 평균 구급 출동 건수는 192건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하루 평균 177건보다 6.8% 증가한 수치다. 이송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2천868명)보다 8.5%(2천805명) 증가했다.

구급대는 ▲코로나 확진자 2천531명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4천729명 ▲예방접종 환자 781명 ▲기타(학생 및 해외입국자 등) 2천735명 등 모두 1만776명을 병원과 격리시설에 이송했다.

반면 화재·구조 출동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는 5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보다 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21명(사망 6명, 부상 15명), 재산 피해는 95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 장소인 음식점·산업시설 등이 244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288건(49.3%) ▲전기적요인 164건(28.1%) ▲

기계적요인 65건(11.1%) ▲원인미상 25건(4.3%)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는 담배꽂초와 음식물 조리가 각각 110건(38.2%)·48건(1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조 출동은 총 4천69건, 하루 평균 14.9건의 구조활동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4천318건보다 249건(5.8%) 감소한 건수다.

사고별로는 ▲교통사고 957건(23.5%) ▲승강기 사고 624건(15.3%) ▲자살 시도 393건(9.7%) ▲산악 사고 206건(5.1%)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 안전출동은 총 1만810건, 하루 평균 40건으로 지난해(9천645건) 대비 12%가 증가했다. 출동별로는 별집제거가 3천44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오작동 2천141건(19.8%) ▲안전조치 2천76건(19.2%) 등의 순이었다.

119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여름철 별집제거 처리는 최근 3년 평균인 2천469건 보다 575건 많은 3천44건

으로 늘었다.

동물포획은 '개', '고양이' 포획활동이 각각 24%, 11%씩 줄어 작년 대비 15%가 감소하는 등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자연재난 활동은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 감소로 관련 활동이 81.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명확한 통계관리의 분석 자료를 정책 수립에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사고 대비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최시장, 선별진료소 격려 방문
이오성 광주시장이 지난 8일 오후 시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점검을 벌였다. (광주시제공)

세계적 여행잡지 '전남 관광' 집중 조명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 남도음식·여행지 등 소개

전남도는 11일 "미국, 유럽 등 32개 지사를 둔 세계적인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여행잡지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Condé Nast Traveler)' 11월호에 전남의 음식과 관광지 특집 기사가 10면에 걸쳐 게재됐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는 글로벌 구독자가 매월 평균 560만명, SNS 팔로워가 1천600만명 이상인 파급력이 높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관광잡지다.

취재는 지난 5월 기자, 사진작가, 연출가 등이 목포, 진도, 장성, 보성 등을 방문해 이뤄졌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시·군의 협조로 진도 조도·관매도, 장성 백양사, 보

성 녹차밭과 남도의 독특한 음식에 대해 상세히 취재했다.

잡지의 전남 소개 페이지는 백양사 정관 스님의 연꽃차 사진으로 시작해 시간에 따라 여행 일정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표현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동 방법과 숙소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목포 식당에서 처음 본 세발낙지를 보며 느낀 점을 감칠맛 나게 표현했으며 잘 보존된 근대 문화 건축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목포 해상케이블카도 소개했다.

진도 관매도의 해안 풍경과 놓여준 마을 풍경, 속막걸리, 드넓은 유채밭과 순박한 주민들을 자세히 표현하면서 가

장 좋아하는 섬이 관매도가 됐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보성 녹차를 통해 전통을 지키려는 소중함 마음가짐과 녹차 떡갈비, 녹차 가지요리, 녹차밥, 녹차 두부 등 음식을 소개하고, 옛날 한국에서 필수적인 생활품 용기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장성 백양사의 아름다움과 불교 정신을 비롯해 전남의 비옥한 토양에서 가꾼 채소를 활용한 정관스님의 훈이 깃든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영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되면 글로벌 관광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전남이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귀농귀촌 행복박람회' 대상

전남도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에서 전국 단적으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공동 우수상을 받았다.

"2021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경남권 최대 규모로 지난 10일까지 4일간 열렸다.

행사장에는 예비 귀농·귀촌인 29개소(광역 3개소, 기초 26개소)가 참여해 부산·경남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여건을 홍보했다.

전남도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요구에 맞게 지역 정책 안내·상담을 통해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았다. 지속적인 인구 유치를 위해 전남도 귀농산업을 유튜브 채널인 '귀농타임' 구독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쳤다.

/김재정기자

광주동물원 북극여우 스타 탄생 예고

암수 두마리 새 등지...계절마다 털색 변해 인기몰이

최근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동지를 둔 '북극 여우'가 신비로운 매력을 뽐내며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계절마다 털의 색이 바뀌고 온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등 카멜레온 같은 모습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1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동물원 소맹수사에 북극 여우 암·수 두 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사진)

이들 수컷·암컷 북극 여우의 이름은 '북진'과 '극진'으로 지난 2017년 10월 태어났다. 우치 동물원은 국내 야생동물 전문 판매업체를 통해 두 마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

'북진'과 '극진'은 면적 100㎡의 우리에서 지내는데, 호기심이 많아 우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에 적응 중이다.

이들은 몸 길이 50~60cm, 꼬리 길이 25cm, 몸무게 5kg으로 비교적 작다. 몸 빛깔은 여름에는 짙은 회갈색을 띠지만 겨울에는 주로 눈이 많은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변한다.

현재 두 마리 모두 몸 빛깔이 흰색이다. 그러나 서식지에 따라 흰 털로 변하지 않고 청회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귀는 짧고 둥글며, 주둥이는 뾰족하다.

마치 흰색 털을 가진 애완견과 흡사하다. 또 서식지가 추운 알래스카·북유럽·러시아·쿠릴열도 등지인 탓에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면 행동이 매우 느리고 더러진다.

우치동물원 측은 북극 여우가 새 우리



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와 나무와 돌계단 설치 등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북극 여우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들도 많다"며 "과거 코끼리가 스타 동물이었다면 요즘 대세는 북극 여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4일 우치동물원은 암·수컷 두 마리씩 붉은 여우 네 마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 이들 동물은 소맹수사 내실에서 적응 기간을 마친 뒤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위기 근로자 안정적 노동전환 지원 확대

광주시, 자동차·가전산업 실직자 등 교육훈련·취업서비스

광주시 고용안정추진단은 10일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산업과 가전산업 관련 기업의 실직자 및 이·전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성장지원, 고용서비스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자동차·가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지원(제품개발, 공정개선 등)과 연관 기업(제분개발, 공정개선 등)과 연관 기업(제분개발, 공정개선 등)의 실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이·전직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운영 결과 지역 실직자, 구직자, 지역 기업 등의 참여와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고용 이슈에 잘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참여자와 참여 기업을 확대

한다.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그린카진흥원,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용접집합공업협회 등 8개 기관에서 하반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급한 사항은 고용안정 취업지원센터(062-603-7600~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권춘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지역 내 위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과 실직자 및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 전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

개원 1주년기념 비전선포 및 정책포럼

행사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14:00

행사장소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참여방법
오프라인 /  YouTube

세부내용
개회선언, 비전선포식, 유공자 표창
정책포럼(주제발표, 패널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과제와 발전방향

